

‘멀티미디어 입국’ 위해 특수지역 운영하려는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우등생, 말레이시아가 ‘멀티미디어 입국’이라는 야심적인 구상을 내걸고 있다. 이 구상의 핵심은 ‘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도’ (Multimedia Super Corridor : MSC). 수도 쿠와라룸폴의 남쪽에 퍼져있는 지역을 코리도 즉 회랑(回廊 : 중심지역, 편집자 주)으로 보고, 인텔리전트 시티나 전자행정부, 신국제공항 등을 배치하여 최선의 통신인프라, 도로교통망으로 연결, 멀티미디어의 일대 실험구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왜 멀티미디어를 차세대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일까. 멀티미디어 입국 구상의 청사진을 리포트해 본다.

“멀티미디어 아시아 '96”은 MSC의 피로연

MSC 계획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무대는 지난 8월 쿠와라룸폴에서 열린 “멀티미디어 · 아시아 '96” 국제회의, 각국의 하이테크 기업 톱클래스와 매스컴 관계자 등 수백명을 앞에 두고 마히티르 수상은 큰 1시간에 걸쳐, 자신의 멀티미디어 입국 구상과 MSC 계획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통신이나 자본, 사람, 물류 등의 흐름이 자유로워지고 국경의 울타리는 차츰 낮아지고 있다. MSC는 이와같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촉진해 나가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 MSC는 승자와 패자를 낳는 제도적 사회가 아니다. 각국 각 기업이 서로 혜택을 누리는 공생사회의 창조를 목표로 한다.”

MSC의 개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쿠와라룸폴 남쪽에 펼쳐있는 동서 15Km 남북 50Km의 광대한 녹지에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도시중의 도시라고 할 쿠와라룸폴 시티 센터(KLCC), 프로라 자야 신행정부, IT시티(정보기술도시), 쿠와라룸폴 국제공항을 새로이 건설, 고속도로망을 정비함과 아울러

전역에 2.5Gbit에서 10Gbit까지의 고속대용량 디지털 네트워크를 깔고 나아가서 다이렉트로 ASEAN 여러나라, 일본, 미국, 유럽과 연결한다. 이곳에 각국으로부터 하이테크 기업을 유치, 수년후에는 일대 멀티미디어 단지를 조성한다.

MSC의 면적은 750km² 도쿄 23구(480km²)나 싱가포르(626km²)보다 훨씬 넓은 MSC는 말레이시아라는 국가속에 건설되는 또하나의 하이테크 정보도시국가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비전 2020”과 MSC

말레이시아의 전자산업육성을 담당하는 말레이시아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 시스템 전자연구소(MIMOS)의 아즈만 소장은 “2020년은 말레이시아에게 대단히 중요한 해이다”라고 강조한다. MIMOS는 이 나라 최대의 인터넷 프로바이더이기도 하다. 마티하르 수상의 연설 곳곳에 ‘2020년’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90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사회 제

1선에서 활약하는 2020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는 국가 목표 “비전 2020”을 내건 것은 5년전의 일이다.

여러 가지 달성목표중에서도 경제 부문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까지 배증시키고 2020년까지 그 갑절을 달성한다. 즉 5천 \$에서 2만 \$로 비약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되풀이해 보아도 현재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도저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답이 정보산업으로의 전환 즉 멀티미디어 산업의 육성인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나 조사, 분석 결과로 마련된 것이 MSC계획이다.

2020년에는 MSC는 국내외에 커다란 성과를 가져다 주고 있을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천연고무나 주석의 대산지로서 일본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나라이나 실제로 과거의 말레이시아는 수출품 전체가 1차산물이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81년 마히티르 수상이 취임직후에 제창한 “Look East” 정책등으로 말레이시아는 1차산품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탈피하여 현재는 수출품 8할이 공업제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제조업 분야에 노동코스트가 보다 값싼 중국이나 인도가 진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그들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환기를 맞는 말레이시아가 활로를 찾아 내려는 것이 MSC를 중핵으로 한 멀티미디어 산업육성인 것이다.

수상이 내건 7가지 애플리케이션

그런데 멀티미디어는 말만 앞서고 그 실상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마히티르 수상은 “2000년까지 다음 7가지 애플리케이션이 MSC안에서 개발 진행중일 것을 기대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자행정 : MSC내의 포토라 자야 신행정부는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로 말레이시아 전국의 행정기관을 연결, 페이퍼레스 행정을 실현한다.

② 원격의료 : 한방이나 한두의술, 서양의학을 모두 갖추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원격의료 영역에서 거점이 된다.

③ 원격교육 : MSC를 대학이나 기업연수소의 일대센타로 하여 원격 교육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세계 1급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차세대 기술혁명을 산출하는 장으로 한다.

④ 원격제조 : 해외의 고코스트 국가의 기업이, 말레이시아 등의 제조공장 집단에 대하여 통신역세스함으로써 그것들을 마치 자국내에 있는 것처럼 운영할 수 있는 원격관리, 기술서포트의 거점이 된다.

⑤ 멀티미디어 서비스 : 말레이시아의 다문화성을 바탕으로 전자출판물의 번역, 텔레마케팅, 원격 아파터서비스의 거점이 된다.

⑥ 파이낸셜 헤이븐 : 세계 각지의 금융센타와 멀티미디어로 직결되는 일대 금융센타가 된다.

⑦ 다목적 스마트 카드 : 한 장의 카드에 개인 ID나 전자 서명기능을 갖게 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예저금, 크레디트, 전화, 교통기관 등 모든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카드를 실용화 한다.

꿈 속의 이야기에 가까운 인상을 받는 이들 테마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제도나 기술면에서의 과제가 극복된다면 수상의 기대는 어느정도 충족될 수도 있다. 소프트 개발을 담당하는 하이테크 기업의 관계자들이 MSC진출에 의욕적이기 때문이다.

강점으로 바뀐 말레이시아의 다민족성

어쨌든 전술한 ②나 ⑤를 보면 분명한 것처럼 멀티미디어 산업육성이라는 점에서 말레이시아는 다민족성이라는 커다란 강점을 가지고 있다. 19세기의 영국 식민지시대에 주석광산 노동력으로 중국인이, 그리고 고무 프랜테이션의 노동력으로 인도인이 유입되어 오늘날의 인구 2천만명의 다민족 국가(말레계 6할, 중국계 3할, 인도계 1할)가 형성되었다. 마히티르 수상이

'70년에 저서 「말레 딜레마」에서 호소한 다민족 국가의 고뇌는 지금은 반대로 강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히티르 수상은 “말레이시아는 지리적으로 ASEAN의 중심에 있다는 우위성이 있으며 나아가서 언어면에서도 동쪽이나 서쪽으로도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말레이시아 국민 대부분이 영어를 쓸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계는 중국어를 쓸 수 있고, 인도계는 타미르어나 힌두어를 쓸 수 있다. 공용어인 말레이어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와 말레이어와는 방언의 차이 정도에 불과하다 한다)와도 용이하게 접촉할 수 있다. 즉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아시아 거대시장과 깊숙히 연결되어 있다. 신공항이나 최신의 통신 인프라가 정비된 MSC는 극히 효율적인 거점이 되는 것이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아시아 '96의 반응과 기업유치 위한 여러 특전

수상은 세계를 향하여 MSC 기업유치를 호소했는데 그 반응은 어떤가. 전술한 아즈만 소장은 웃는 얼굴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상 이상의 반응이 있었다. 일본에서만도 100사 이상의 입주희망이 있었고 미국의 멀티미디어 관련 유력기업도 다수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MSC 진출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는 파격적인 우대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내년중에 진출을 결정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5~10년에 걸쳐 면제. 기타 10년간 해외의 지식노동자에 대한 자유로운 채용허가, 외자비율의 제한 철폐 등 치외법권과 같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나아가서 하이테크 기업에게 가장 큰 매력은 「사이버법의 정비」일 것이다.

처음부터 MSC계획에 깊이 관여해온 텔레콤 말레이시아의 사이드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업국은 오래된 법에 묶여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다. 이점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약이 적고 마히티르 수상의 강력한 리더쉽하에 멀티미디어의 저해요인이 되는 법률이나 규제는 얼마든지 바뀌 나갈 것이다. 이미

초안은 되어 있으며 빠르면 금년중에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MSC에서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법체계가 적용될 것이다.”

NTT의 역할

실은 텔레콤 말레이시아나 MINOS와 함께 MSC의 컨셉 작성에 일본의 NTT가 참여해 왔다. 마히티르 수상은 금년 2월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NTT를 방문했다.

수상은 NTT의 연구소도 견학, 차세대 TV회의시스템 등 여러 가지 연구성과를 살폈다. 특히 오픈 컴퓨터 네트워크(OCN : NTT가 추진하고 있는 컴퓨터통신에 적합한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의 실용성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NTT를 단순한 전화회사로서가 아니라 하이테크놀로지 기업으로 평가한 바 있다. 사이드 사장이 그 경위를 설명한다.

“일본에서는 여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연구상황을 조사했으나 어느 나라건 아직 실험단계에 있다. 테크놀로지에 관해서는 일·미가 뛰어나며 특히 NTT의 테크놀로지에 매력을 느꼈다.” NTT는 말레이시아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현재 말레이시아 측과 연계하여 기본구상을 굳혀나가고 있는 단계이다.

NTT의 과제는 국제사업과 멀티미디어라고 줄곧 주장해온 NTT이사는 멀티미디어 아시아 '96의 패널 토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멀티미디어에는 중요한 기능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법률 등의 정비, 두 번째는 인재의 확보·육성, 세 번째는 네트워크를 정비하여 값싸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MSC에 청신호가 켜진 지금 전세계의 지혜를 굶어모을 필요가 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마히티르 수상이 그 정비를 약속했으며 인재면에서는 MSC내에 지식노동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또한 말레이시아 국내의 인재육성계획도 이미 발표된바 있다. NTT가 일본에서 곧 서비스 개시예정인 오픈 컴퓨터 네트워크(OCN)가 MSC내에 정비되기로 되어 있다. MSC가 시동되는 것은 1998년이다. ●